



신 프로젝트! 일당백 기술력으로 비상하라

◀ 뛰어난 기술력으로 무장한 '에이포웰'의 전웅수 대표

1+1은 2가 될 수도 있지만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3이 될 수도 있다. 실력 있는 벤처기업을 조련하는 벤처 인큐베이터는 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벤처인큐베이터에 입주해 있는 '에이포웰(대표 전웅수)' 또한 최고의 기업이 되기 위한 발걸음을 떼고 있다.

Q 에이포웰의 소개와 사업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에이포웰은 자동차, 선박 및 자동화와 관련된 산업체에서 함께 일하던 전문 인력들이 뜻을 모아 2004년 2월 창업한 회사입니다. 간단히 사업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어·계측기반의 자동화 및 가정용·서비스용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자동차 시험기·부품과 선박 자동화 설비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특히 제어계측시스템 개발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National Instruments사와 Alliance member를 체결했습니다. 2004년에 신기술보육(TBI)사업 신기술사업자에 선정되면서 현재 저희의 보금자리인 서울벤처인큐베이터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Q 에이포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무엇입니까?

A 여러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뛰어난 능력을 갖춘 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6명의 핵심 기술 인력들 중 5명이 전문 석·박사 출신입니다. 이들 모두 미래형 자동차 동력시스템, 선박의 자동화 시스템, 산업계의 유·공압 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제어·계측 시스템의 개발 경험을 두루 거쳐 온 엘리트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깊고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사업화시키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폭넓은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 초기의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었던 것도 개개인의 탁월한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Q 앞으로 에이포웰과 비슷한 길을 걷고자 하는 회사에게 당부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A 창업 후 인큐베이터에 입주한다고 그것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그것이 인큐베이터의 각종 이점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직원의 대부분이 연구소 출신이라 마케팅 부분에서 좀 미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큐베이터 입주 후 저희가 나름대로 구축한 협력업체와의 네트워크에 인큐베이터를 통한 네트워크가 더해져 훨씬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시장을 외면한 기술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인큐베이터에 입주한 후라도 자체적으로 취약한 부분은 반드시 보완해야 더 큰 회사, 내적으로 강한 기술력을 가진 회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Q 앞으로 에이포웰의 계획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A 현재 국내 대형 조선사와 선박 자동화 설비에 대한 계약을 성사했습니다. 2년의 노력 끝에 얻은 결실이라 무척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그밖에도 가정·서비스용 로봇의 사업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실성 있는 시장을 지향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만족시키는 회사, 화려한 외형보다는 내적으로 강한 기술력을 갖춘 회사로 성장하는 것이죠.

서울벤처인큐베이터 한인배 팀장이 말하는 에이포웰

에이포웰은 관련 분야의 오랜 경험과 우수한 역량을 바탕으로 신기술창업보육사업(산자부)과 중소벤처창업지원사업(중기청) 등에 참여하며 성공적으로 창업한 회사이다. 최근 중기청 기술혁신사업 참여와 벤처기업확인 등을 통해 기업의 우수성을 검증받은 에이포웰은 앞으로 성공적인 보육단계를 거쳐 곧 차세대 벤처리더로서 세상에 우뚝 설 것이라 믿는다.

건강한 벤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벤처 인큐베이터. 이번 호부터 벤처 인큐베이터에 입주해 있는 신생 벤처기업을 매달 한 곳씩 소개합니다.